

‘오월 망자’ 냇 위로... 기억하기 위한 ‘환생굿’ 펼쳐진다

지정남커뮤니케이션

지정남 배우 ‘1인극’ 무대

26~27일 민들레 소극장

씻김굿 보유자 조웅석 출연

망자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씻김굿을 배운 전라도 무당 ‘고만자’. 하지만 막상 그는 굿 소리에 자신이 없다. 어떻게든 생계는 유지해야 했던 까닭에 그녀는 기상천외한 영업 방법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듯 생소한 ‘환생굿’이 바로 그것.

고 씨는 억울하게 돌아간 망자들을 환생시키는 영동한 환생 굿판을 펼친다. 어쩌다 보니 환생 굿의 첫 손님은 1980년 5월 ‘광주의 망자’다. 과연 5월 영령들이 원혼과 아픔을 씻어내고 환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정남커뮤니케이션(대표 지정남)이 5·18 광주 민주화쟁을 극화한 1인극 ‘환생굿’을 펼친다. 오는 26~27일 민들레 소극장에서 진행하며 매일 오후 7시 30분, 주말 3시, 7시 공연.

지정남 배우는 ‘5·18이 40주기를 넘으면서 여러 고민들이 떠올랐는데, 그중 하나가 ‘광주 5월’의 거시적 의미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비극사에 집중해보자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5월 당시 시민군들에게 주먹밥과 물을 나눠주고, 마스크와 검은 리본을 만들어 상부관에서 시신을 지켰던 평범한 광주 여성들의 서사에 주목한다.

당시 가두시위에 동참하고 헌혈을 통해 피를 내셨으며 투사회보를 낚았지만, 지금은 투사로서의 이름은 잠시 잊고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에 주목하겠다는 것.

공연은 ‘굿’ 형식과 맞물려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영화 ‘파묘’에서 나왔던 대살구 등도 얼핏 떠올라 자못 친숙하다.

지 배우는 “굿은 ‘산 사람을 위한 행위’로 영혼의 극락왕생을 비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오히려 생자에게 위로가 된다”며 “이런 마음에서 화순능주씻김굿을 1년 여간 배워극 속에 녹여냈다”고 했다.

이어 “씻김굿 보유자인 조웅석 선생님 등도 직접 악사



극 중 무당 ‘고만자’가 배필을 쥐고 환생굿을 펼치고 있다.

〈지정남커뮤니케이션 제공〉

로 출연해 구름과 대금, 징소리 등을 더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씻김굿’이야말로 5월 망자들의 냇 위로하는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다. 특히 공연은 망자를 위무하는 ‘씻어냄’의 의미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작고한 5월 영령의 냇을 다시 인간세상으로 환생시키는 ‘창작 굿’의 의미까지 담고 있어 ‘굿판’을 소재로 한 여타 공연과 차별화가 된다.

그는 “굿은 늘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 무엇보다 현장성과 생생함이 가미된다”며 “굿판 자체가 대동 단결의 주제의식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도 ‘관객참여형 공연’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무대에서는 감칠맛 나는 전라도 말이 구사될 예정이다. 80년 당시 광주의 아픔을

오랫이 가져오기 위한 매개로 ‘전라도 사투리’만 한 요소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1인극 형식’을 차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5·18의 개인 서사에 주목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며 “한 명의 배우가 여러 캐릭터를 연기해 더 내밀한 감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980년 5월 27일 도청 진압 이후, 신군부는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광산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고 모두 ‘행불자’ 처리했다. 이들은 감금되던 당시 생리대조차 지급받지 못할 정도로 비인간적 취급을 받았고,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지 씨는 “사회적 모델 속에서 스스로 이름을 지워버렸던 여성들이, 다시 역사와 사회 전면에 ‘당당히’ 섰으면 하는 바람에 씻김보다 ‘환생굿’으로 극 전반을 이끌어오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개념은 ‘기억 투쟁’이다. 우리 사회가 5·18은 물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다양한 비극을 문화예술적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아픔을 진혼하는 좋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5월이 다가오는데 나눌 이야기가 참 많네요. 해야 될, 알아야 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다들 굿 보러 꼭 오세요, 지랄코 있을라우.”

작중 무당 ‘고만자’처럼 전라도 사투리로 전하는 끝인사가 구성된다. 공연관람은 네이버 예약,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번 공연에는 ‘환생굿’ 등 코믹한 요소가 곁들여져 있어, 무겁지 않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는 ‘환생굿’ 등 코믹한 요소가 곁들여져 있어, 무겁지 않게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했던 광주영화학교 수업 장면.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제공〉

광주 영화인 작품 4편, 전주국제영화제 오른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양주연·이경호·이현옥·김소영 감독 작품 상영

광주 영화인들의 작품 4편이 다음 달 전주에서 열리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으로 선정돼 화제다. 이들 작품은 모두 ‘광주영화학교’ 출신 감독들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8일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연대)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총 4편의 광주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양주연 감독의 ‘양양’이 한국전쟁 세대에서, 이경호 작 ‘혼자’가 코리안 시네마 섹션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현옥 작 ‘기억의 집’과 김소영의 ‘올리브’는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 부문 특별상영작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광주영화학교 5회 출신으로 양 감독은 다큐멘터리 수업 강사, 이경호 감독은 단편영화 제작 기초반, 이현옥 감독은 다큐멘터리 수업 수강생, 김 감독은 광주청소년영화학교 수업을 맡았다.

광주영화학교는 단편영화 제작 기초·심화반을 비롯해 다큐멘터리 기획, 장면 시나리오 완성반, 연기 워크숍 및 영화비평, 해외영화 수업 과정 등을 공부하는 기수제 프로그램이다. 연대와 동강대학교 미디어콘텐츠과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연대는 올해에도 ‘광주영화학교’ 6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첫 수업 ‘영화문화 기획자 양성과정’은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으며, ‘단편영



이경호 작 ‘혼자’ 스틸컷

화 제작 워크숍’은 6월 모집해 7~8월 강의할 예정이다.

이상훈 이사장은 “국제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하는 성과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영화 관련 예산 삭감 결정 등으로 인해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창·제작자들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영화계의 ‘영화학교’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10일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는 43개국 232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전주 영화의거리 일원과 전북대 삼성문화관 등지에서 상영한다.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디지털창작소에서 참가자들이 ‘나무도마 만들기’를 하는 모습.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디지털 활용 도마·3D초콜릿 장식품 만들어요

광주디자인진흥원 ‘디지털창작소’, 교육·체험공간 운영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나무도마도 만들고, 3D 초콜릿 장식품도 만들고.

일상에 파고든 디지털 열풍은 증강현실은 물론 창작이나 교육, 체험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사물이나 상품을 제작하는 일이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시 북구 임동에는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창작소가 있다. 작년에 완공된 일명 ‘임동디지털창작소’는 다양한 장비를 갖춘 공간으로 교육, 체험 등이 가능하다. 3D프린터를 비롯해 푸드프린터, 목공장비 등 약 66개 종류의 디지털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임동디지털창작소가 창작자 프로그램은 물론 교육 서비스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나만의 머그컵 디자인’, ‘업사이클링 아트북 제작’, ‘나무 도마 만들기’ 등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향후 강좌는 ‘디지털 장비 활용 창 제작’(15일), 아이디어·창작의 즐거움(5월 7~19일) 등이 예정돼 있으며 특히 임동 일대의 지리적, 문화적 자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야구 굿즈 상품 등은 야구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도전해볼 만한 부분이다.

주선희 팀장은 “2023년 개관한 디지털창작소는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간단한 문화상품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며 “머릿속 상상력을 디지털 장비를 매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과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단한 용품부터 복잡하고 전문 메이커 과정에 이르기까지 매일 프로그램을 구분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사전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인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임동 디지털창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 역사·문화 알리요”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학산책’ 공모전

호남에는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많다. 역사와 풍광, 스토리가 있는 문화자산은 향후 미래의 K문화의 토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이들 문화유산을 의미있는 글이나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문화의 힘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 콘텐츠의 힘에서 좌우되기 마련이다.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제4회 호남학산책 공모전을 오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연다. 호남의 문화를 비롯해 예술, 명소 등에 대한 수기나 칼럼이 대상이며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호남학산책’은 호남진흥원이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호남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로 1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각각의 주제는 ‘민속의 재발견’, ‘명사초대서’, ‘풍경의 기억’, ‘맛기행’, ‘고문서와 옛편지’, ‘미지의 초상’ 등이다.

당선작은 각각 1명씩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이 수여된다.

홍영기 원장은 “‘호남학산책’은 우리 겨레 우리 고장의 사상문화, 생활지혜를 밝히는 글빛 향내를 배달하는 주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귀한 글들이 많이 투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이 지난 광주수설공연에서 노래하는 모습.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다채로운 음역대가 만드는 환상의 하모니

광주시립합창단 ‘성악가와 세상의 음악’... 20일 공연마루

인간의 목소리뿐만 무대를 채우는 ‘성악’ 공연은 행연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곤 한다. ‘메조소프라노’, ‘소프라노’, ‘카운터테너’, ‘바리톤’ 그리고 ‘베이스’ 등 다양한 음역대의 조화는 여느 기악 합주 못지않은 매력을 발산한다.

광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은 ‘성악가와 세상의 음악’을 오는 20일 광주 공연마루 상설공연장에서 연다.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곡은 물론 클래식, 뮤지컬 수록곡 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합창단 이준 부지휘자는 “한국 가곡을 시작으로 무반주 전체 합창곡인 ‘I Sing, You Sing’,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등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 곡들 성악가들이 저마다의 테크닉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무대를 채워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 가곡을 테마로 소프라노 김지나가 김효근 작곡가의 노래 ‘사랑의 꿈’으로 막을 연다. 이어

테너 김원태는 이탈리아 가곡 ‘꿈’을, 바리톤 윤찬성은 러시아 가곡 ‘다만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를 부를 예정이다.

무언 성악곡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는 카운터테너 김대성이, 미국 가곡 ‘Amor’는 메조소프라노 김혜진이 독창한다.

오즈의 마법사 OST ‘무지개 넘어’는 메조소프라노 백미화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OST ‘이룰 수 없는 꿈’은 바리톤 김창식이 들려준다. 이 밖에도 카바레 샹송 ‘유칼리’는 메조소프라노 오지영, 혼성 2중창 ‘작별을 고할 시간이에요’는 소프라노 김은혜와 테너 유정석의 듀엣으로 만난다.

합창단 이정호 기획·홍보 담당은 “봄 기운이 만연한 주말에 펼쳐지는 이번 무대를 통해, 다양한 세상의 음악들을 감상하며 ‘음악적 감수성’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티켓링크 및 전당 홈페이지에 메.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